

신안 압해도 젊은 주민들의 '보이는 라디오', 16일 첫 방송 예정

문체부 '2022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

18명 주민들 팀 꾸려 직접 방송 프로그램 2개 만들어

신안군 압해도에 살고 있는 젊은 주민들이 제작하는 '보이는 라디오'가 오는 1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강미라 씨를 비롯해 18명의 압해도 주민들이 팀을 꾸려 직접 만들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모두 2개, 각각의 이름은 '신안살이 몇 해인가?'와 '동트리 마을학교 이야기'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압해도 '문화지소 신안'에 모여 라디오 제작 과정을 학습하고 있다. 또한 대본, 연출, 진행, 기술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 세부 분야를 익히고 있다.

생생하고 다양한 지역살이 공유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본은 공동작업으로 완성했다. 이들 주민들의 학습을 돕는 강사진은 광주의 영상 전문집단 '엔리미디어' 팀이다.

두 개의 프로그램 중 '신안살이 몇 해인가?'는 신안 귀향·귀촌 이력이 평균 7~9년에 이르는 이들이 주축이 돼 만들고 있다. 이들은 사투리, 음식, 귀농, 도시생활에 대한 로망 등을 주제로 대본을 썼고, 자유로운 팟캐스트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용은 귀농·귀어·귀촌에 대한 허심탄회한 경험담이 주를 이뤄 청취의 재미를 주는 것은 물론, 예비 귀촌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동트리 마을학교 이야기'는 압해동초 학부모들과 돌봄강사들이 제작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생들과 동트리 마을학교를 꾸리고 있는데, 이 학교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구성원들의 탄탄한 유대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라디오 제작진은 그간 마을학교를 가꿔온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예정이다.

압해도 주민들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6시 유튜브를 통해 연습방송을 라이브로 첫 송출한다. 이후 내용을 보완해 11월 23일 오후 6시에 정식 본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방송은 영상 스트리밍 채널인 유튜브의 특징과 최근 추세를 반영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본 작업을 지도한 정재경(전 광주MBC 방송작가) 강사는 "대본들이 모두 수준이 높고 내용이 생생하다. 전체 구성도 탁월해서 수정 없이 그대로 방송을 해도 될 정도이다. 신안 섬살이의 즐거움과 고단함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흡입력이 좋은 방송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압해도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2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문체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은 문화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이며, 신안군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6개 지자체 중 한 곳이다.

문체부와 신안군 공동 주관의 '신안 2022 지



영암군 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은 중심 프로젝트인 '그림책 아일랜드'와 '마을미술 프로젝트', '나는 신안에 산다'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3분야

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부 문화프로그램은 총 18개다.

신안=이명주기자



목포 수산식품기업, 유통채널

상품기획자와 판로 확장 모색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우수상품 품평 상담회 개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지난 4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수산식품기업 등 중소기업 30여개사의 판로지원을 위해 '우수상품 품평 상담회'를 개최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품평회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도 국내 유통채널 MD(상품기획자)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참가기업들을 위해 대형 유통채널의 상품기획자에게 우수상품을 선보인 뒤 디자인, 생산, 품질, 위생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이번

행사에는 GS홈쇼핑, 롯데마트, 농협경제지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 등 국내 굴지의 유통채널 MD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담회를 신규 입점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가격 및 납품일 등을 조율한 후 온라인과 대형 유통망에 입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의 농수산식품 기업들에게 다양한 유통채널 MD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산식품,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외국인정책, 어떠신가요?"

영암군 '2023년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모집

영암군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제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20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외국인주

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네트워크와 군정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수당, 워크숍, 법률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

으로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인구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존중받는 영암군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으며, 앞으로 모니터링단이 군정에 대한 다양한 방향과 의견을 제안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꿀벌자원육성 품종 증식장' 유치 성공

영광군은 전라남도 곤충잡업연구소(소장 주경천)에서 추진하는 2023년 꿀벌자원육성 품종 증식장 설치사업 최적 후보지로 영광군 낙월면 일대가 최종 선정(10. 31.) 되었다고 밝혔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설치사업은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현장실사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총 24억 원(국비 12, 도비 12) 규모로 낙월면 일대에 꿀벌 관리동과 꿀벌 사육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영광군에서 유치하였다.

곤충잡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증식장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낙월면 일대는 혼종예방,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종 증식, 보급용 품종의 지역적응시험 등 형질 특성 연구 및 기술보급 등 풍부한 밀원식물과 꿀벌자원의 엄



격한 계통유지 관리와 증식을 위한 환경조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낙월도에 꿀벌자원 증식장 구축이 완료되면 관내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에 따른 양봉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전남농업기술원과 산림공원과, 낙월면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양파 재배 기계화 '박차'...생산비·노동력 절감

함평군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양파 재배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계화 활용을 양파 정식작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양파 정식기인 10월 말부터 11월 초는 벼 수확 시기와 겹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에 군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양파 정식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계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농협 및 양파 농가와 함께 기계화 작업 추진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하고, 2025년까지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현재 113ha인 기계화 면적을 150ha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